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58> 덧없는 세월의 불꽃

늦가을 곱게 물들었던 나뭇잎이 찬바람에 휘날려 떨어지는 것을 보더라도 하면 흔히 사람들은 허무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여 '무상'하다고 말한다. 또 멀찍이서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중병에 걸리거나 죽어버리기도 하면 슬프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여 이 세상이 '무상'하다고도 한다. 이처럼 세간에서 허무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무상이라 표현은 본디 집집에서 나온 말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덧없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인연이 흩어지면 없어질 것이므로(예행무상講行無常) 모든 것이 영원불변한 것 인양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이를 깨닫지 못하고 덧없이 사라질 것에 집착하면 뒷날 이 집착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괴로움이 생기게 마련이다. <선가귀감> 58장에서 말한다.

고해 보이는 이 세상도 우리가 죽고 난 뒤 긴 세월 속에서 언젠가는 없어질 것임을 누구든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도 세상을 이루고 있는 지수화풍 사대(四大)의 인연이 흩어지면 언젠가는 사라진다.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이 세상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가는 모습이 흡사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는 것과도 같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덧없는 세월의 불꽃이[無常之火] 온 세상을 불살라 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번뇌는 법신 손상시키고 남의 생명 앗아가니 머리에 붙은 불 끄듯 간절하게 공부해야

과 마음에 집착함으로써 스스로 온갖 고통을 불러들인다. 몸에 집착함으로써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고통이 있으며, 사랑하는 마음에 집착하여 사랑하는 이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고통(애별리고 愛別離苦)을 받고, 원함과 중요성을 떨치지 못하니 미워하는 사람을 보고 살아야 하는 고통(원증회고 怨憎會苦) 받았으며, 갖고자 하나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고통(구불득고 求不得苦)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괴로움은 '모든 것이 무상(無常)하여 실체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중생들이 시비 분별로써 거기에 집착하여 생기는 고통이다. 중생들을 애대우는 이런 괴로움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으므로,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애대우는 괴로움의 불꽃이

(衆生苦火) 사방에서 치솟아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의 경계를 분별하여 집착함으로써 생기는 번뇌는 수행자의 공부를 방해한다. 이 번뇌는 '분별이 없는 부처님의 생명과도 같은 지혜 곧 법신(法身)'을 손상시키므로 남의 생명을 앗아가는 도적에 비유하여 '번뇌적(煩惱賊)'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도 "도적처럼 남모르게 생명을 앗아가는 번뇌들이 늘 공부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엿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도를 닦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점을 각성하고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서둘러 공부해야 할 것이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身有生老病死 界有成住壞空 心有生住異滅 此無常苦火 四面俱焚者也

몸에는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괴로움이 있고 불질로 만들어진 이 세상은 성주괴공(成住壞空)의 허망함이 있으며 중생의 마음에는 생주이멸(生住異滅)의 무상함이 있다. 이 몸은 죽어지고 세상은 허물어지며 중생의 마음은 덧없이 변해버리니 덧없는 이 고통의 불꽃들이

게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둘러보면 무상한 세월의 불길이 사방에서 휘휘 타올라 젊음도 아름다움도 총명함도 앗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산 스님은 계승으로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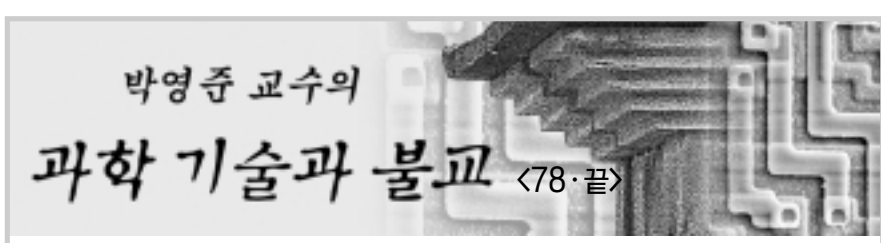
謹白參玄人 光陰莫虛度

삼가 아뢰노니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여 /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지어다.

'현(玄)'은 깊고 깊은 진리이므로 '참현인(參玄人)'은 깊은 진리를 찾아 공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광음(光陰)'에서 '광(光)'은 빛으로서 환한 대낮을 뜻하고 '음(陰)'은 그늘로서 어두운 밤을 뜻한다. 낮과 밤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며 한 달이 모여 일 년이 되면서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이 '광음'이다. 원호 스님은 일찍이 <참심 수행장>에서 다음과 같이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후학들을 경책하셨으니 스님의 간절한 당부를 마음에 새겨 수행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 몸은 어느 날 홀연히 흩어지고 말 뿐 오래 보존될 것이 아니다. 오늘도 벌써 저녁이라 어느새 내일 아침이 되는구나! 끊임없이 시간이 흘러 금방 밤이 지나가고, 끊임없이 하루하루가 바뀌어 빠르게 한 달 그름이 지나가는구나. 끊임없이 한 달 한 달이 바뀌어 출연 일 년이 되고, 끊임없이 한 해 한 해가 바뀌어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구나. 부처님 수레는 굴러 가지를 못하고 늙은 노인은 공부를 할 수가 없다. 누워서든 계몽판 사고고 앉아서든 어지러운 생각만 일어나느니라. 몇 생을 이 공부를 떠나 헛되이 밤낮을 보냈으며, 이 헛된 몸을 얼마나 더 살리려고 이번 생도 공부하려는 마음을 내지 않느냐? 이 몸은 반드시 그 끝이 있으리라 뒷날 몸을 여지하려느냐? 우리의 공부가 어찌 급하고 급하지 않겠느냐?"(四大忽散 不久住 今夕夕矣 頓行朝哉 時時移移 速經日 日日移移 速經月 月月移移 忽來年至 年年移移 暫到死門 破車不行 老人不修 臥生懈怠 坐起亂識 幾生不修 虛過日夜 幾活空身 一生不修 身必有終 後身何乎 莫速急乎 莫速急乎)

원호 스님(송광사 인월암)



겨울여행과 마끼 교수

이번 겨울은 필자에게 유난히 외국 여행이 많은 계절이다. 세계를 다니면서 만나고 있는 과학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에너지고 지구 온난화 문제이다. 매일 먹고, 입고, 사용하는 일용품이 쓴 가격으로 우리에게 오기까지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한다. 특히 WTO 체제 내에서 물품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하나로 묶여있는 요즈음은 더욱 그러하다. 에너지 낭비의 결과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지구가 방사하는 열을 차단함으로써 지구의 온난화를 부추긴다. 마치 더운 여름에 창문을 닫아두어서, 자동차 내부의 열을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의 온난화는 남·북극의 얼음을 녹게 하여, 얼음이 태양열을 다

있으며, 전 세계가 지금과 학자들 참여시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 또한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인류의 문제를 풀기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은 지구 곳곳에서 나누어 협력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일 것이다. 밤낮없이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눈에서 보살의 마음을 본다. 모두가 보살과 같은 자비의 눈을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을 공부하면 할수록, 우주 삼라만상 어느 것 하나 인연의 법칙에 걸리지 않은 것이 없고, 이들이 모두 아름다운 인도의 땅에서 서로를 가르치며 존제한다는 불성의 의미와 이 불성이야말로 궁극적인 우주심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깨닫게 된

인류 위해 연구하는 과학자들 보살심 지녀 불성이야말로 곧 '우주심'이라는 것 깨닫게 돼

시 방사하는 양을 줄임으로써 지구를 더욱 덥게 만들 것이다. 오랫동안 자연이 만들어 왔던 순환 시스템을 순식간에 바꾸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류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영국 뉴캐슬에 있는 더럼대학을 방문한 필자에게 그 대학의 물리학자 한 석유를 사용하는 대신 바다에 무한히 존재하는 디트륨분자를 이용한 범세계적인 핵융합 프로젝트인 '아이서' 프로젝트를 설명한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엄청난 크기의 자장을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전류를 흘리기 위한 초전도 실험을 하고 있었다. 실험실에는 지구에서 최고 측정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국 젊은 학자가 와 있었다. 거대한 핵융합 장치라 프랑스에 지어지고

다. 뉴질랜드에서 저녁식사를 같이한 한머리가 성성한 일본계 미국교수인 마끼 교수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잊을 수 없다. 일본 첫 노벨 수상자인 유가와 교수의 제자였던 이 교수는 우주 본질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도그마에 걸리지 않는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였다.

회자정리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던가. 이제 칼럼을 접을 때가 되었다. 지난 2년 동안 나노기술부터 생명공학까지, 그리고 반도체 기술부터 통신 기술까지 현대과학기술을 다루면서, 이들이 가지는 의미를 불자의 눈으로 담으려고 노력했다. 한 사람의 독자라도 이 글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필자의 행복이다. 한 사람의 마음이 곧 우주 전체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한입에 소옥~ 불교상식

무문관

최근 발간된 <문 없는 문, 빗장을 열다>가 불교계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으면서 '무문관(無門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무문관은 화두를 들고 문밖에 나오지 않은 채 하는 수행을 통칭한다. 국내에서는 계몽사 대자암, 제 주 남국선원 등 몇 곳에서 무문관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무문관>은 화두 타파를 위한 적절한 수행을 이르는 한편 화두들을 모아놓은 책 <무문관>을 말하기도 한다. <선종무문관(禪宗無門關)>이라고도 불리는 <무문관>은 중국 남송의 선승 무문 혜개 스님이 48개의 화두를 모아 엮었다.

이를 공안48칙(公案四十八則)이라고 하는데 제1칙이 '조주무자(趙州無字)'이다. 이 화두가 나머지 47칙을 아우르는 최고봉이라고 수행자들은 입을 모은다.

조주무자에서 무문 스님은 '무'를 종문(宗門)의 일관(一關)이라 부르고, 이 일관을 뚫고 나아가면 몸소 조주로 모실 뿐 아니라 여대 조사와 손을 잡고 함께 행동하며 더불어 견문을 나누는 즐거움을 같이 하게 된다고 한다.

즉 조주의 '무'는 유무의 분별을 끊은 절대적 '무'를 가리키며, 깨달음의 절대 경지를 '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무문관에는 이 '무자' 탐구가 전면에 걸쳐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문관 화두를 들고 수행자들은 깨닫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는 각오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수행에 든다.

김지연 기자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시	수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윤.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합숙 수련)
전원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영합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영합판 3매

□ 원서교부 : 수시교부 및 입학(교재비만 부담)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즐거 수행을 익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계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학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7년 1월 30일 부터 □ 입학일 : 3월 5일(월) 오후 2시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찰,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통신교육을 익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불교예술대학

□ 모집인원 : 약간명

□ 수업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수시 입학 가능)

□ 강의내용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점바라 도량계작법, 다계작법 사방요신, 법교무 사물(북, 태징, 목탁 등) 다루는법

□ 지도교수 : 대혜스님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